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터넷은 산업사회의 철도나 도로 또는 전력망과 같은 국가기간망과도 같다. 현재의 우리는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하고, 이메일로 업무를 수행하며, 대부분의 은행 관련 일을 인터넷뱅킹으로 해결하고, 인터넷쇼핑몰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주요 유통경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주요 컴퓨터들도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심지어 군의 지휘체계도 인터넷기반으로 구축되고 있기에 가히 인터넷은 국가의 중추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 국가의 중추적인 기간시설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지만 지난 7월 오후에 시작된 '7·7 인터넷 대란'은 보안의식이 결여된 정부와 컴퓨터 사용자들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1999년의 'CIH 바이러스 대란', 2003년의 '인터넷 대란'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사이버 보안(公安)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한 결과 이번 '7·7 사이버 대란'에서도 정부의 미흡한 대응체계, 빈약한 대응기술 수준만 보여 주었으며, 개인은 그들의 PC가 인터넷 대란을 일으키는 좀비PC의 역할을 하도록 방치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첫 번째 임무가 공안(公安)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과



불자 세상보기

이종욱
동국대 정보관리학과 교수

클린 사이버 세상, 개개인의 노력필요

거 정치행태로 인해 공안이라는 단어가 거부감이 일부 있었으나 공안의 원래 뜻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편안히 유지되는 상태'를 국가가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범죄자가 넘쳐 우리는 밤길을 걸을 수도 없으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해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붕괴될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는 이번의 디도스 공격에 무력한 보안취약국가임을 전 세계에 노출하였기에 창피함은 둘째 치고 향후 또 다

시 악의적인 세력에 의한 사이버전쟁에 휘말려 중요한 사회기반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利器)인 인터넷은 이제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디도스(DDOS,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Attack)란 수많은 개인 PC에 해킹기술로 웹마이

러스를 이식해놓고 특정 시간에 특정 사이트에 대해 일제히 수많은 접속요청을 보냄으로써 서버나 인터넷 망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었다. 이는 마치 수많은 차량이 고속도로에 일시적으로 몰려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도 같다. 이와 같은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동시에 범죄 없는 세상을 향해 노력해주시는 것이라 사 이버 세상을 위해 합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와 같은 문명의 이기(利器)인 인터넷을 버릴 수 없다면 정부는 차선과 신호등과 같이 적절한 도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과 같이 인터넷 기반 시설의 보안체계 구축에 매진해야 하고, 자동차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에 대해 정기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듯이 PC 사용자는 정품 백신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주기적인 PC 치료를 수행함으로써 더 이상 좀비PC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깨끗한 사회를 유지할 때 범죄와 범죄가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듯이 인터넷 사이버 세상도 우리들이 청결하게 지킬수록 외부의 범죄자들이 감히 침입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건전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지리산 야단법석'에 거는 기대

올 여름 불교계가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8월 14일부터 4박 5일이란 짧은 기간에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야단법석은 불교계에서 흔히 개최되는 여느 법회나 세미나 워크숍 등과 다르다.

무엇보다 내용의 차별화가 눈에 띈다. 많은 불자들이 탄식하듯 '불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을 한다. 불교 밖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있는 올 가을을 의식해 '제발, 조용히 넘어 갔으면' 하고 바라는 말들도 심심찮게 들린다. 지리산 야단법석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탄식의 선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최측에서도 야단법석을 통해 뭔가 '큰 것'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법회의 방법도 새롭다. '선지식'의 발제 강연에 이어 사부대중이 아무런 각본 없이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발제를 맡은 '선지식'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원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법회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역할과 태도가 중요하다. 얼마나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이 법회에 참여하는가에 법회의 성패가 달려 있다. 주최측의 기획 의도에 부합된 말과 행동이 필요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토론문화는 좋은 것이다. 부처님도 토론을 통해 증생을 교화했다.

모처럼 기획된 야단법석이 한국불교의 일그러진 모습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승만보살'의 10대원으로 살자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여성불자들이 '승만부인'의 10대원을 지키겠노라 부처님께 서원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승만보살 10대원 수계법회'를 가졌다. 그간 불교의 전통 속에는 승만보살의 10대원을 수계하는 의식은 없었다. 그래서 이 법회는 큰 의미를 갖는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다양화되고 있고, 무너지는 가치가 늘어나는 시류에 비춰 볼 때 승만보살의 10대원은 매우 큰 가르침이다.

승만보살의 10대 원은 계율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불자와 비불자의 기준은 바로 수계 여부다. 불자라면 당연히 수계를 받아야 한다. 받은 계는 지켜야 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불자의 삶이다. 승만보살의 10대원이 철저한 지계를 첫 번째 삼은 까닭도 지계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러 교만하고 화내고 질투하고 인색한 마음을 경계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는 바로 끊임없는 정진을 발원하는 것이다. 복잡한 현실에서 하심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밝은 세상 만들기의 첫 걸음이다. 또 10대원은 베풀고 섬수하며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정법을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발원이다.

이 같은 발원은 오늘날 여성 불자뿐 아니라 모든 불자들에게 중요한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승만보살의 10대원이 모든 불자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길 당부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7월의 테마-휴식

70년만의 폭우가 서울, 경기를 강타했다. 이 장마가 그치면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휴가철을 챙기기 시작했을까? 농경시대에 휴가는 자연이 내리는 것이었다. 시집 인연이 맞으면 농사를 지어 일을 하고, 그것이 불가할 때에는 쉬었다. 농번기가 지나면 농한기가 있었다. 부처님 당시의 안거(安居)도, 우기(雨期)에 바깥으로 다니며 교화하는 것은 득(得)보다 해(害)가 많으리라는 판단 아래 정해진 규약이었다. 안거는 밖으로 보내던 에너지가 거둬들이는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내년을 더욱 충실히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요즘 직장인들은 거주장소인 장마를 비껴서 여름휴가를 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무언가를 즐기기에 큰 비는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주어지는 휴가의 기회도 올해는 유래 없는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등으로 마음놓고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한 번 생각해보았다.

'절하기'는 현대인의 피로회복제

'내 삶에서 진정한 휴식은 언제였던가?' 가장 먼저 결혼 당시가 떠오른다. 결혼은 나에게 오랜 객지 생활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커다란 사건이다. 결혼은 크나큰 안식(安息)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아이를 낳고, 또 둘째 아이를 낳고 기르며 점점 지쳐갈 즈음 둘과 구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숙원사업이던 학위논문 쓰기 시작하였다. 두 아이를 피해서 확보한 논문 작성 기간은 나에게 달콤한 휴가였다. 논문을 쓰는 내내 얼굴은 화기가 들었다.

'휴식' 혹은 '휴가'는 '일'의 반대말이다. 논문작성도 그때는 '휴식'이 되었으나, 과제로 부여받았다면 '일'이 될 것이다. 칸트에게 최대의 휴식은 독서라고 했다. 감상문 숙제를 앞둔 학생에게 그것은 일이다. 어느 원로 교수님께서 '운전은 나에게 가장 큰 휴식이야'라고 하였다. 정말 운전은 즐기면서 편안하게 하신다. 그러나, 갑자기 직장을 잃어 급기가 운전대를 잡게 된 상황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처럼 '진정한 휴식'이란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있지 않다. 고요한 사물을 찾아 참선을 닦는 다 한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참된 안거(安居)라 할 수 없듯이, 상황이 불

가피하여 휴가를 쓰지 못하고 직장에 있다면 마음은 쌓임이 있지 않고 참으로 청량하고 고요하다면 그것이 최상의 휴식이고 휴가인 것이다.

불가(佛家)에는 마음의 쌓임을 씻어 내는 비방이 참으로 많다. 그중 현대인들에게 가장 효과가 빠른 것 중 하나가 '절'이다. 현대인은 만성피로증을 비롯하여 각종 병들을 안고 있다. 잠을 자고 쉬는 것만으로는 몸이 개운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피로나 병은 근본적으로 업무나 인간관계 등에서 생겨난 각종 스트레스의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몸이 원천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 현대인에게 '절'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씻어줄 수 있는 최고의 피로회복제이자 청량제가 될 것이다. 108배로 휴식을 맞본 이는 1080배의 서원을 세우고, 1080배로 휴식을 맞본 이는 3000배의 서원을 세우는 뜻이 여기에 있다. 최상의 휴가를 즐기시길 기원하며...

오지연

고려대장경연구소 학진 연구팀 전문연구원



현불만평 박구원

자동체 서비스

참~쉽죠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형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로 인곡동 175-87 인곡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이온 www.yosiamun.com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좌

-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 ① 일 정 : 2009. 7. 25(토) 오후 1시부터 ~ 7. 26(일) 오후 6시까지
 -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